

# “삼국지 읽으며 영어 배우자”

「영어회화 삼국지」 펴낸 배진용씨



“공부에 왕도는 없다.” 진리처럼 전해 내려오는 말이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라는 당부로도 들리는 말이다. 하지만 배진용씨(40, 전 경주호텔학교 영어교수)의 의견은 다르다.

“왕도가 별겁니까? 따분한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왕도가 아니겠습니까? 황허강의 물결도 어제의 그것이 아닌데, 어찌 어제의 공부법으로 국제화시대의 공부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영어공부도 재밌게 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문부호를 던지는 배진용씨가 “영어공부방법의 혁신”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있게 내놓은 책이 바로 「영어회화 삼국지」(도솔)이다. 전5권에 걸쳐서 동양의 고전 「삼국지」를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국영문혼용체로 각색한 이 책은 ‘어려운 영어’를 ‘쉬운 영어’로 바꿔서 보여주기도 한다. 책의 서두는 이렇게 장식된다.

“Winter is gone and spring has come. 겨우내 얼어붙었던 황허강 물결기는 spring air (봄기운)가 감들자 거센 울음을 토해냈다. 그 누런 황토 물결기는 유유히 그리고 도도히 day and night 변함없이 흘러내렸다.”

이러한 문장은 끝까지 이어지는데, 쉬운 단어·숙어를 중심으로 편성된 제1권에 비해 제2권은 조금 많은 분량의 영어가 들어간다. 물론 어려운 단어나 숙어는 괄호를 마련하는 성의도 잊지 않는다. 또 영어사전에 필요없는 영어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히는’ 독자들은 배진용씨가 별도로 마련한 ‘잔소리’

를 따라가면 된다. 웃고 즐기는 사이에 ‘만만한 영어’는 결국 5권에 이르러서는 고급영어로 변신해 독자들에게 영어회화의 진수를 선보이게 된다.

“영어를 전혀 모른다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어를 모른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태어날 때부터 ‘Good morning’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한걸음 한걸음 눈길을 떼다보면 영어는 어렵지 않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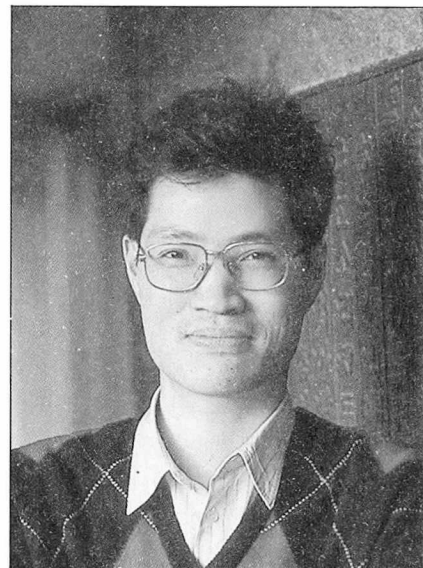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국어 신봉자’인 배진용씨는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 말을 많이 쓰고 있는 현재의 언어생활은 고쳐쳐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배진용씨의 책이 영어공부에만 초점을 모으는 것은 아니다. 「삼국지」를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비, 관우, 장비 3형제가 펼치는 무용담과 함께 조조의 지혜, 손권의 우직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어찌보면 설정자체가 참으로 우습기도 하다. 도대체가 ‘위 아니 니’라고 말해야 할 유비가 ‘I love you’라고 말한다는 상황설정은 상식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웃음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성수 기자

# 한수 접고 보면 재미있는 홍콩 영화

「香港電影 1997」 펴낸 강인형씨



비디오 가게에 가면 한쪽 벽면이 거의 홍콩영화다. ‘킬링타임용’ 이든 ‘기분전환용’ 이든간에 홍콩영화를 즐기는 매니아들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인데, 지금껏 홍콩영화에 관해선 단편적인 언급에 그치는 정도였다. 그만큼 ‘천박한 상업성’ ‘저질 홍콩영화’로 인식돼 온 탓이다.

그러나 강인형씨(34, 일간스포츠편집부)는 “다시 보지 않고는 못배기게 만드는 홍콩영화의 ‘마력’에 대한 심층탐구와 원인분석 과정이 생략됐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이번에 「香港電影 1997—홍콩영화의 이해」(한울)를 펴낸 것도 대중문화 한켠에 깊숙이 자리잡은 홍콩영화의 파장과 상업성만 각인하고 있는 우리의 편협한 시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함이다.

홍콩영화 ‘매니아’일 정도로 관심이 유난했던 강씨가 공동 저자인 김지석씨(36, 부산예술대교수)를 만난 것은 이 책을 석달 가량 준비하던 와중에서다. 영화평론가이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영화전문가로 정평이 난 김교수 또한 이 분야의 책을 구상중이라 하여 공동작업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나온 「香港電影 1997…」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화산업과 각 장르 연구, 97년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홍콩영화산업의 변화 전망 등 1896년부터 시작된 홍콩영화 100년사라는 거대한 숲을 조망하고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영화가 한수 가르쳤다는 ‘외팔이’ 시리즈 이후 홍콩영화의 변화는 속도감 그 자체였습니다. ‘모방의 귀재’답게 헐리우드영화조차 번번이 실패했던

동양의 정서를 상업화하는 자질을 보여왔고, 중국적 소재에다 서구적 아이디어와 연출기법을 입히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변에는 그들의 영화산업도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홍콩의 영화산업이 거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영화를 ‘문화상품’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80년대 이전에 이미 영화산업에 눈뜬 재벌들이 투자를 아낌없이 퍼부었고, 미국서 막 귀환한 신예제작자들은 거대자본으로 무장시켜 영화전선에 투입했다는 얘기가.

이 책이 가진 또하나의 미덕이자 매니아로서 강인형씨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홍콩영화를 무협·콩후·SF·물·코미디·멜로드라마·괴기물 등 세부적으로 그 장르를 구분한 장이다. 이제 웬만한 작품은 극장을 거치지 않고 논스톱으로 비디오대여점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육식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도 매니아가 할 일”이라고 한다. 강씨가 영화 ‘뽀’에서 영화에 기울이는 열정은, 곧 영화홍보와 배급에 관한 실무서 ‘필름 & 마케팅’의 출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배은희 기자



## 아카데미 유아교육동화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영역별 연령별

# 아카데미 유아교육동화 **리승리승**으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알콩달콩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 유아프로그램 '뽀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날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 ‘따뜻한 현실주의자’로 다시 태어난 신숙주

「사람의 길, 큰 사람의 길」  
펴낸 박덕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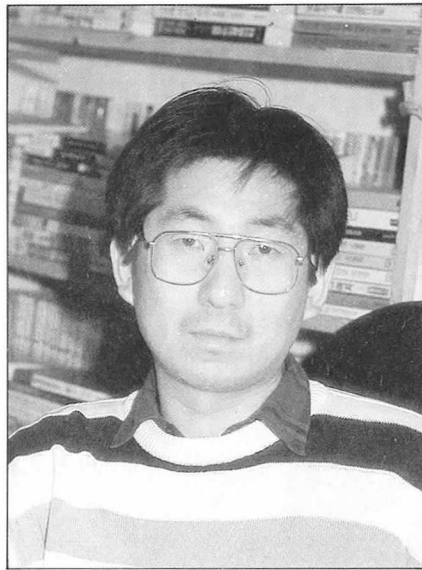
조선왕조사 가운데 가장 자주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시공간을 꼽으라면 단연 세종의 승하에서 세조의 왕위찬탈, 사육신사건과 노산군(단종)의 죽음에 이르는 7년간이 될 것이다. 이광수의 「단종애사」를 비롯해 이문구의 「매월당 김시습」, 최근 화제가 됐던 TV사극 「한명회」까지 그 파란만장한

시공간의 인물들은 작가나 연출가의 개성적인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해석·형상화되었다. 박덕규씨(37·소설가)의 「사람의 길, 큰 사람의 길」(둥지)은 그 시공간 속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주인공으로서 조명받지 못했던 신숙주(申叔舟)의 일대기를 평전 형식으로 그리고 있어 흥미롭다.

“도학적인 명분에만 가치를 두는 유학의 분위기는 성삼문, 박팽년 등 사육신의 충절만을 강조해 왔고, 그 대칭점에 선 신숙주는 변절한 지식인의 대표자쯤으로 평가절하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신숙주는 변절자가 아닙니다. 사육신들이 도모한 단종복위 모의에 가담하는 대신, 유학의 논리를 강력한 왕권과 결합시켜 자신의 배운 바를 현실정치에 적용하고자 노력한 합리주의자였을 뿐입니다.”

박씨는 애초 이 평전에 얼마간의 허구적 요소를 가미해 볼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간 책임있는 고증을 거치지 않은 역사소설들로 인해 신숙주의 생애가 면면이 왜곡돼온 것에 주목, 문헌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을 편년체로 기록했다.

‘이분법적 논리로 가치를 평가한 뒤 그것에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적 풍토’를 비판하고자 박씨가 상징적으로 택한 인물 신숙주는 알려진 바와 같이 훈민정음 제작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외교·국방면에 재능을 발휘했고, 다수의 유려한 시문을 남기며 당대에 높은 정치적·학문적 성과를 거둔 이다. 그의 유고시문집 「보한제집」에서 드러난 ‘지나칠 정도로 상대방의 처지를 감싸고 위해주는’ 인간적 면모를 지적하며 박씨는 신숙주가 ‘따뜻한 현실주의자’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가치 있는 길, 가치 있게 죽어가는 길이 여럿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길은 오욕을 뒤집어쓰고서라도 자신의 뚜렷한 신념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연유로 언젠가 정도전의 일생도 평전으로 저술해 볼 생각이었던 박씨는 ‘이시애의 난’에 연루된 신숙주가 의금부에 하옥됐을 때의 일화를 「너와 나의 그림자」(작가세계 94년 겨울호)라는 제목으로 소설화한 바 있다.

—한 강 기자

# 날말의 생생 뿌리에서 찾는 역사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  
펴낸 박숙희씨

요즘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는 드라마 ‘모래시계’에 역사적인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정황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런저 승용차나 휴대폰, 차등 윈드슈퍼 전문점 등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다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서운관)를 펴낸 박숙희씨(34, 서운관편집장)가 이 드라마를 보고 찾아낸 ‘옥의 티’는 남다른 점이 있다.

“76년 학생운동 장면에선 대자보가 등장할 수 없어요. 대자보가 쓰이기 시작한 게 80년대 들어서니까요. 또 여주인공이 유인물 가방을 들고 총학생회를 찾아가던데 당시에는 총학생회가 아니라 학도호국단이 있었을 뿐이죠.”

이렇듯 예리한 지적이 가능한 건 박씨 자신이 그동안 ‘뜻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500가지’를 펴내는 등 ‘우리말 살려쓰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다. 더욱이 이번에 출간한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는 단어의 생성시기와 역사적 개연성의 문제를 크게 고심하게 만든 책이다.

같은 직장 서운관에서 만난 유동숙씨(29)와 공동으로 펴낸 이 책은 우리말의 생성시기와 유래, 잘못 쓴 예를 시기별로 분류, 수록한 것이다. 그 시기는 광복이후·일제강점기·개화기·조선시대·고려시대·부족국가~통일신라시대·고조선으로 분류하고 있어 각 시대에 어울리는 낱말을 가려 쓸 수 있게끔 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편에 있는 ‘감자’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다. 벽초 홍명희가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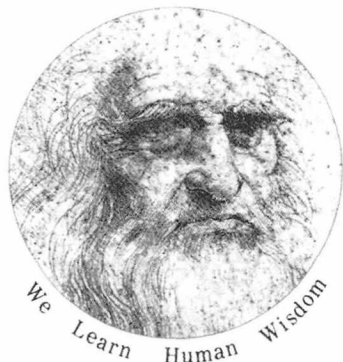
「임격정」 제2권에서 걱정이기 운송이라는 처녀의 어머니에게 “이 산속에서 무얼 먹고 사느냐”고 하자 그녀의 어머니가 “지금은 집 뒤에 화전을 일어서 감자도 묻고 강냉이도 심고그 한다오”하고 대꾸한다. 박숙희씨는 “우리나라에 감자가 들어온 때는 1820년경이고, 강냉이는 임진왜란 당시인 1590년대”라고 못박는다. 그렇다면 소설안에서 1562년에 죽어버린 임격정이 감자나 강냉이 구경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말이 안된다. 이는 명백한 오류인 것이다.

“신뢰도가 높은 방송매채나 활자매체에 등장하는 이러한 오류가 자칫 우리 문화·역사를 그릇되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줄까 염려스러워요.”

중학교에서 6년간이나 국어를 가르쳐 본 이력을 갖고 있어서인지 낱말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조심스러워진다는 박숙희씨. 이 책이 명사형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곧 형용사, 동사, 조사 등에 관한 증보 개정판을 낼 예정이다. 벌써 두권이나 책을 펴냈지만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은 지난해 결혼한 그가 신혼의 단꿈에 젖을 겨를도 없을 만큼 대단하다.

—배은희 기자

소중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



## 지혜로운 삶으로의 안내

하루에 한 편씩 읽는 365일 인생 지침서

인류에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남긴 지혜의 언어들에 가득하다. 이러한 언어들에 후세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자극을 주고, 사상을 굳세고 윤택하게 하며, 새로운 좋은 행동의 원천이 되어준다.

- 하루에 한 편씩 읽다보면 어느새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김창원 편 / 400쪽 / 값 5800원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 5991 팩시밀리 739-2129

## 동물들의 사랑만들기

숨막히는 열정? 차가운 배신! 장엄한 희생! 그리고 가슴 저리는 순애보……

- 동물들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동물들의 섹스는 인간과 무엇이 다를까?
- 작은 딱정벌레에서 코끼리, 오랑우탄에 이르기까지 온갖 동물들의 별난 짝짓기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
- 재미있는 카툰과 함께 펼쳐집니다.

글 그림 김충원 / 양장본, 값 5000원